함평군, 산불 피해목 재활용… 탄소중립 실천 '한몫'

29㏊ 피해목 100톤 펠릿 재활용
관내 한우농가 100가구 무상공급
임업자원 활용 농가 지원 최선
산딸나무 식재 등 산림 회복 노력

함평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해 관내 축산농가에 깔개용 펠릿 100톤을 무상 지원했다. 군은 산불 피해목 재활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자원 예산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산불 피해목 무상벌채(수집)와 벌채면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용 톱밥(펠릿) 무상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상반기에 벌채된 면적 29㏊에 대한 산불 피해목을 재활용, 100톤의 펠릿을 함평군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한우농가 100가구에 지난달 26일 무상 공급했다.

함평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불 피해목을 탄소중립 실천 자원으로 재활용, 축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자원 재활용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산불발생 지역에 산딸나무, 배롱나무 등을 심어 산림을 회복하는 한편 관광사업 자원화에도 힘쓰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산림부산물과 재난 피해목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무심기 확대와 함께 산불 피해목 펠릿 공급 등 임업자원 활용을 통한 다각적인 농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난해 4월 함평 산불 피해목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축산농가 깔개용 펠릿 100톤이 지게차를 통해 운반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탄소중립 환경보전 활동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회장 김금남)가 지난 4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7일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환경공단 담양군사업소(수북면 소재)에서 회원 20명이 모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수거한 버려진 폐비닐 및 폐농자재를 환경공단에 제출하고 탄소중립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생활개선회원과 함께한 이번 탄소중립 실천운동은 탄소중립 3고(GO) 운동(올리GO, 내리GO, 유지하GO)의 15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천 과제는 토양 개량제 뿌리기, 완효성 비료 사용 늘리기, 농기계 공회전 자제, 시설원예 연료 줄이기, 물 절약, 폐영농자재 수거와 소각금지, 가축 손실 사료량 줄이기, 비료 사용 처방서와 농약 안전 사용 지침서 준수, 영농 경영기록 생활화, 가축 적정밀도 준수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생활개선회는 실천 과제를 생활 속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운영위원회의 및 읍·면 순회 교육, 회의를 통해 13개 회 290명이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과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열린다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화순군은 '2024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오는 18일 개막한다고 7일 밝혔다.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은 공연·판매·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일부 판매만 진행되는 경관 관람형 축제로 진행된다.

축제장 초입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 등 9종의 다양한 가을꽃 단지가 2만평 이상 넓게 펼쳐지며 화순을 대표하는 가을꽃 조형물 68종 174점이 화순 고인돌 유적지 곳곳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 관광 활성화 국제 학술대회를 비롯해 5개 분야에 총 2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공간은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개 존으로 압축했고 휴게시설도 2개소 이상 늘려 편의를 증진했다.

축제의 특징 첫번째로 입장료는 전 연령층이 동일한 5000원이며 신분증을 지참한 화순군민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단 입장권을 받는 즉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되며 상품권은 축제장은 물론 화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친환경 축제를 위한 입점 부스의 다회용기 의무 사용이다. 환경파괴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축제장 내 모든 음식부스의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기 사용 물품은 그릇, 접시, 사각볼, 숟가락, 젓가락, 컵 등이며 관광객들이 사용 후 축제장 내 마련된 공동 퇴식구 및 자율 반납대에 반납하면 된다.

세번째로는 야간 축제 운영이다. 축제 평균 방문 시간은 약 3시간으로 광주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으나 오래 머물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했다. 이에 축제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19일과 26일 이틀 동안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경관, 2024 DM 콘서트를 개최하여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가을의 낭만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축제만의 대표 메뉴를 개발·판매할 계획이다. 한때 전국 3대 광산으로 불렸던 화순 광업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탄광 아이스크림 △국화 로스팅 커피 △들순이 국화빵 △복숭아빵 등은 축제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단품 음식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관내 만감류 재배 농가에게 재배기술 현장교육을 펼쳤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제주서 고품질 만감류 재배기술 현장교육

이론 강의 및 하우스·농장 견학

곡성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관내 만감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만감류 재배기술 현장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감귤 마이스터 농장을 방문하여 고품질 만감류 재배기술에 대한 이론 강의를 청취하고, 만감류 시설하우스와 체험농장을 견학했다.

곡성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하기 위해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천혜향, 레드향 등 2종의 만감류 특화단지 2.8㏊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로 0.7㏊ 단지 조성을 진행 중이다.

곡성군과 옥과농협은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4년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제주도 만감류 농업 마이스터를 초빙한 현장컨설팅을 8회 실시했고 만감류 선진지 견학을 6회, 사업 추진 협의회를 14회 개최하는 등 재배농가의 역량 강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고품질 만감류 재배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며 "이는 곡성군 만감류 생산 기술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함평군,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모집

17일까지 신청

함평군이 지역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도 제5회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회'에서 의결된 장학생 선발요강을 바탕으로 17일까지 함평군 읍·면사무소에서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하반기 장학생 선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인재'와 '성적우수' 전형을 통해 각각 150명과 25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분위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학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선발요강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11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선발 확정 후 1개월 내 지급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교육을 위한 투자는 곧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학생들은 다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고향사랑기금 후보 사업 설문조사
15일까지 제출

장성군이 '고향사랑 기금사업' 후보 사업에 대해 군민, 기부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금을 활용해 군민 복리 증진,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선 5월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에 이어 9월 기금사업 발굴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고향사랑 숲길 조성 △조정 꿈나무 경기정 지원 △찾아가는 고향사랑 이불 빨래방 사업 △치매 '올케어' 안심 하우스 △고향사랑 복합공간 조성 5건을 설문조사 안건으로 확정했다.

조사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장성군민 누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기부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병행한다.

'네이버 폼'을 활용해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에서 관광객 대상 현장 설문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성=유봉현 기자